

광주시·함평군 “신경제특별시로 도약” 공감대

광주전남 통합 함평군 상생토크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10일 오전 함평군 엑스포공원 주재영상관에서 '광주전남 통합 함평군 상생토크'를 개최하고, 통합 추진배경과 함평의 발전전략을 공유했다.

이날 상생토크에는 강기정 광주시장과 이정선 광주시교육감, 이상의 함평군수, 이남오 함평군의장을 비롯해 지역주민 등 300여명이 참석했다.

강기정 시장은 먼저 광주전남 통합의 필요성과 그동안의 추진 경과, 정부 차원의 재정·제도적 특전(인센티브), 지역 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통합의 필요성 등을 설명했다.

강 시장은 통합효과로 "인구 500만, GRDP 300조, 경제성장률 3%의 신경제특별시를 만드는 것이 목표"라며 "민주주의를 이끌어온 광주와 전남이 이제 대한민국의 성장을 이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통합 이후 광주-함평의 상생 발전 비전으로 ▲미래차국가산단-진곡산단-빛그린산단을 잇는 미래차 삼각벨트 조성 ▲30분 광역생활권 구축 ▲광역교통망 확충을 통한 정주·생활환경 개선 ▲영농형태양광 확대를 통한 농가 소득 기반 강화 ▲도시형 관광 기반시설(인프라)과 생태관광 기반시설(인프라)의 융합 등을 제시했다.

이어진 자유 질의응답에서는 ▲아이(RE)100 산단 추진 ▲통합 이후 학군 유지·변동에 따른 교육여건 변화 ▲통합시 출범 이후 주민 의견수렴을 위한 창구 마련 ▲의료취약지역 문제 해결 및 빛그린산단 인근 권역의상센터 설치 필요성 ▲통합 이후 농어촌 특례 및 재정 구조 유지 여부 ▲지역소멸위기 대응방안 등에 대한 다양한 질문이 이어졌다.



통합 이후 산업·교통·농촌 발전방향 공유... “부강한 광주전남 실현”

미래차 삼각벨트·30분 광역생활권·도시와 생태관광 연계 전략 제시

강기정 시장 “광주전남 재설계 통해 대한민국 대표 신경제특별시로”

참석자들은 통합은 단기간에 완성되는 사업이 아니라 10년 이상 함께 준비하고 만들어가야 할 과정이며, 그 출발점에 선 지금의 혼란은 불가피하지만 지역발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라는 점에 공감했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광주전남 통합의 목표는

단순한 행정구역 결합이 아니라 산업·교통·의료·교육을 하나의 생활권으로 재설계해 광주전남을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신경제특별시로 도약시키는 것”이라며 “통합은 누군가의 것을 빼앗는 과정이 아니라 1과 1이 더해져 3 이상의 성과를 만들어내는 과정인 만큼 통합 추진과정에서

어느 지역도 소외되지 않도록 균형발전과 산업·의료 등 기반 확충을 함께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광주시는 이날 공청회에서 제시된 주민 의견을 종합·분석해 통합 추진 정책을 반영하고, 지역 특성에 부합한 발전방안을 체계적으로 구체화할 방침이다.

한편 광주시는 11일 나주시, 12일 고흥군 등 전남 시·군을 중심으로 '광주전남 통합 도민과 의 상생토크'를 순차적으로 이어가며 지역별 맞춤형 통합 비전을 공유할 계획이다.

/전광춘 기자

김영록·강기정, 공공기관 10곳

전남광주 이전 요구

올 하반기 정부의 2차 공공기관 이전 발표를 앞두고 김영록 전남지사·강기정 광주시장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에 따른 전남광주 공동 유치 목표 공공기관 10곳을 발표했다.

김 지사와 강 시장은 11일 각각 전남도청과 광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하반기 정부가 발표 예정인 2차 공공기관 이전과 관련, 전남광주가 공동유치 핵심 유치 목표 공공기관 10곳의 기관명과 이유에 대해 밝혔다.

양 시도지사가 밝힌 첫 번째 기관은 농협중앙회이다. 전남은 전국 최대 농업 중심 지역으로 1차 공공기관 이전 당시 한국농어촌공사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등 주요 농생명 공공기관이 자리 잡은 만큼 관련 기관 집적에 유리한 여건을 갖췄다는 판단이다.

두 번째는 한국지역난방공사다. 전남은 재생에너지 발전 잠재력이 444GW로 전국 1위이며, 전국 최초로 도 전역이 분산에너지특구로 지정됐다. AI(인공지능)·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한 에너지 전주기 생태계 구축을 위해서는 열에너지·전력 연계 인프라를 담당하는 지역난방공사 이전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세 번째는 한국마사이다. 전남은 2029년까지 말산업 기반 구축을 목표로 승마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고 있지만, 경마공원 없는 상황이다. 마사회 이전 시 말산업 인프라 구축과 관련 산업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네 번째는 한국환경공단이다. 여수국가산단과 광양제철소 등 전국 최대 온실가스 배출 산업단지가 위치한 전남은 탄소중립 기술 실증과 환경관리 정책 수행의 최적지로 평가된다.

다섯 번째는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이다. 광주시는 AI 모빌리티 국가 시범도시 조성을 추진 중으로, 국토교통 기술의 연구개발-실증-사업화까지 이어지는 산업기술 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여섯 번째는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이다. 전남은 석유화학·철강 산업의 친환경 전환과 함께 우주항공·반도체 등 첨단산업 도시로의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산업기술진흥원 이전 시 첨단산업 육성과 기업 지원 기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일곱 번째는 한국공항공사다. 전남광주에는 광주·무안·여수·흑산(예정) 등 지방공항이 다수 위치해 있다. 공항공사가 이전하면 군공항과 민간공항 통합 추진, 항공 정비(MRO) 산업 기반 조성 등 항공산업 육성의 동력이 확보될 것으로 보고 있다.

여덟 번째는 수협중앙회다. 전남은 전국 최대 수산물 생산 거점으로, 수협중앙회가 이전할 경우 김·전복 등 주요 수산물의 해외 수출 확대와 글로벌 K-푸드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아홉 번째는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이다. 전남은 재생에너지 발전 잠재력이 전국 최고 수준이며, 인공태양 등 청정에너지 기술 개발과 실증이 활발히 추진되고 있다. 에너지기술평가원 이전을 통해 연구(켄텍)·기획·평가·사업화(화전 등)로 이어지는 에너지 전주기 통합 생태계 구축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열 번째는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이다. 광주는 국가 AI 컴퓨팅센터와 글로벌 AI 데이터센터 등 데이터 인프라가 집적된 AI 데이터 실증도시로, 데이터 정책 실증과 산업 확산의 거점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는 점에서 진흥원의 이전 필요성이 제기된다.

/김병남 기자

‘합당 중단’ 민주당, 갈등 수습 부심... “같은’ 바탕으로 총단결”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조국혁신당 합당 갈등 이후 당내 수습에 나섰다. 조국혁신당을 향해 우호적 메시지를 보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11일 오전 최고위에서 “어제 저와 지도부는 지방선거 전 합당 논의 중단, 지방선거 후 통합 추진을 천명했다”며 “우리 안의 작은 차이를 넘어 오직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 ‘큰 같음’을 바탕으로 총단결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가 12·3 비상계엄의 사선을 넘고 윤석열 국회 탄핵, 헌법재판소 파면 선고를 일마나 초조한 마음으로 합심 단결하며 기다렸다. 조희대 사법부가 이재명 대선 후보의 직을 박탈하려 할 때 얼마나 같이 분노했나”라고 강조했다.

이어 “천신만고 끝에 출범한 이재명 정부의 성공만 생각하고, 앞으로 지방선거 승리에 도움이 되는 일만 하자”며 “더는 합당 논란으로 우리의 힘을 소비할 수 없다”고 했다. 다만 “전당원

정청래 “작은 차이 넘어 큰 같음으로 총단결... 전화위북 기회로”

이언주 “강한 주장으로 걱정 끼쳤다면 송구... 鄭대표 충정 의심 안 해”

투표를 시행하지 못한 점에 대해 당원들께 정말 죄송하다고 덧붙였다.

정 대표는 “비 운 뒤에 땅이 굳는다고, 이제 이를 전화위북의 기회로 삼아 지방선거 승리에 올인하겠다”며 “4월20일까지 모든 공천을 마무리하겠다는 민주당의 공천 시간표는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진행됐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했다.

지난달 22일 조국혁신당과의 합당을 전격 제안한 정 대표는 당내 반발이 지속하자 선수별 의원 면담 및 의원총회를 거쳐 전남 지방선거 전 합당 논의 중단을 결정했다. 그간 갈등하던 민주당 지도부는 이날 일렬로 손을 맞잡으며 단합을 강조했다.

이언주 수석최고위원은 이날 “큰 혼란과 갈등을 불러왔던 논의가 일단락돼 참으로 다행”이라며 “합당은 단순한 정치 이벤트가 아니라 당의 정체성, 당원 선택권, 당의 정치 지형과 선거전략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중대 사안”이라고 했다.

이 최고위원은 이어 “최고위원들이 당원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대변하고 다소 무리한 일방적 의사 결정을 견제하려 하다 보니 강하게 주장한 경우도 있었다”며 “혹시라도 당원 동지 여러분과 동료 의원들께 걱정을 끼쳤다면 송구하다”고 했다.

아울러 “논의 과정에서 여러 평가와 논쟁이 있었지만 저는 우리 (정청래) 대표의 충정 자체를 의심하지 않는다”며 “논의가 정리된 만큼 대

표와 최고위를 비롯한 당 지도부가 화합된 모습으로 당을 안정되게 운영하도록 힘을 합치겠다”고 했다.

이 최고위원과 함께 합당 논의에서 비판 목소리를 내던 황명선 최고위원도 “고뇌 끝에 결단을 내린 (정청래) 대표께 감사한다”며 “지혜를 모아주신 동료 의원들, 묵묵히 참고 기다려 주신 당원들께도 당 지도부의 일원으로 송구하고 감사한다”고 했다.

황 최고위원은 “더 성숙하고 더 화합하는 방식으로 이 문제를 풀어야 할 것”이라며 “더는 ‘잔심도 애당심, 반대도 애당심’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우리는 이전에도 원팀이었고 앞으로도 원팀일 것”이라고 했다.

강득구 최고위원은 “3주간 너무 힘든 여정이었다”면서도 “민주당이 얼마나 다양하고 건강한 정당인지 확인하는 과정이었다”고 했다. 그는 “지방선거 전 합당을 추진하고자 한 당원들의 의견도, 논의를 미루고자 했던 당원들의 마음도 모두 존중한다”고 했다.

/뉴시스

Self 장어명가 청산 광주점

장어명가 청산 광주점 - 약품을 쓰지 않은 장어만 판매

영광 법성포 청산양만 명품 장어

**無항생제
無균
無소독제!**

1일 18회 순환여과 및 미생물 배양 정정시스템으로 국내산 청정 명품장어

HACCP
(위해요소중점관리우수)
해양수산부
인증번호: 제 AQ-0026

무항생제
(NON ANTIBIOTIC)
인증기관명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인증번호: 제5-18-0001호
해양수산부

전국 500여 양만장중 무항생제 지정업소 단 1곳

전국 500여 양만장중 HACCP 지정업소 단 3곳

예약문의 T. 062)233-9592

광주 동구 내남동 330-3(월남지구 호반2차 옆 슬바우주유소 옆)

저희 장어명가 청산 장어는 국내유일 무항생제 인증과 해썹(Haccp)으로 인증된 양어장에서 "무항생제, 무균, 무소독제"로 직접키운 명품장어입니다. 무항생제 장어 최고 품질! 장어명가 청산 광주점에서 모시겠습니다.